

아파트는 '작은나라'...주민 참여가 답이다

아파트 민주주의

남기업 지음

얼마 전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경비원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잇을만 하면 벌어지는 관리비 부정부패,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연간 관리비 총액은 15조에 달한다고 한다. 엄청난 양의 용처를 아파트 동대표들이 정하는 체제다. 엄청난 액수에 비해 제대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다.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한 구조 탓에 아파트 관리비를 '논돈'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더러 공사에서 뒷돈 챙길 욕심이 있거나 '회장님' 또는 '대표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기회의 때 지급되는 회의비 등을 생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입주자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생활적폐 청산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발간됐다.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자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등의 저자인 남기업 박사가 펴낸 '아파트

민주주의'가 그것. 책은 지난 2015년 중순부터 시작된 회장 임기 조부터 실제 겪은 일이 모티브가 됐다.

저자는 "삶의 계획표에 아파트 회장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인의 강권으로 동대표에 출마했고, 이후 회장 선거까지 나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됐다.

책에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비리와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지난한 과정, 모함과 질서를 극복해나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9년 7월부터 30회 기고를 목표로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시작하면서다. "싸우는 이야기여서인지 예상외로 반응이 뜨거웠다"는 말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회의 문제는 간단하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생활하기도 바쁜데 관심을 가졌다가 낭패를 보기 싫어서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차라리 관리비를 조금 내고 말지, 하는 무관심이 주민들 다수의 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면에는 관리비를 '논돈'으로 생각하거나 감투 쓰기 좋아하는 이들의 행태를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드리워져 있다.

"아파트 비리가 드러나면 입주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동대표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며 핏대를 올리지만, 냉정하

게 말해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해놓고, 아니 국회의원 선거날에 여행이나 가면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아파트는 '작은 나라'라고 규정한다. 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수리비, 장터 운영자 선정 등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입주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뒷돈 챙기기와 권력 휘두르기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무관심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자는 두 방안을 제시한다.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 그것. 본질적 수단은 제도개혁이며, 의식개혁의 최종 목표는 제도개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논리다.



저자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2018년 현재 50.1%)이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인 이상 이제 '마을'하면 '아파트'를 떠올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꽃피울 곳, 자치가 실현되고 체면되어야 할 최소 공간 단위가 '아파트'라는 것이다. '아파트' 민주주의의 성공이 '국가' 민주주의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복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심폐한 여름휴가**=2016년 문학과학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허희정의 첫 소설집이다. "온전히 도저히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의 감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했다. 7편의 단편은 SF, 판타지, 스릴러, 추리소설 등 여러 장르가 조합돼 있지만 불안이라는 장치가 소설 전체를 연결한다. 2018, 2019년 문지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STAINED', '실폐한 여름휴가' 등이 수록됐다.

〈문학과학지성사·1만3000원〉

▲**전쟁과 가족**=한국전쟁 당시 양민들이 처했던 현실과 폭력이 작동한 방식을 가족과 친족의 관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한국의 전통적 공동체에서 인간적 친근함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한국전쟁이라는 정치의 주요 표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긴 전세기 동안 어떻게 국가적 규율 행위의 핵심이 되어왔는지를 드러낸다.

〈창비·2만원〉

▲**이상한 의학과**=이재갑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의학과 3부작 '무서운 의학과', '위대한 의학과', '이상한 의학과' 중 하나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수백 년 전에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했던 질병, 미신과 마법과 무지가 낳은 기생천연의학과 의료 행위, 자신만의 신념을 지켰던 괴짜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72편의 에피소드가 이상한 병·약·의사·의료라는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수룩했다. 〈사이언스북스·2만2000원〉

▲**페미니즘들의 세계사**=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의 저항들이 맞서온 지배 세력의 형태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시대와 사회 혹은 그 안에 있는 집단들이 부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다. 책은 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의 폭넓은 적용 범위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왜 수많은 계파가 생성되고 그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준다.

〈책과함께·1만1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포치가 온 바다**=여름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바다처럼 시원한 색깔로 그려 낸 이 와사기 치히로의 대표작이다. 여름 방학을 맞은 차이는 엄마와 함께 바닷가 할머니네 집을 찾는다. 정든 친구들과의 작별, 다음 학년으로의 성장을 앞둔 겨울 방학과 달리, 여름 방학은 어린이에게 온전히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시간이다. 기차의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는 차이의 설렘을 복돋운다.

〈미디어창비·1만3000원〉

▲**진짜 형이 나타났다**=최신형 생체로봇 보보는 자폐성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리를 위해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보보와 보리는 그린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함께 학교생활을 한다. 성숙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보보. 그런데 강현이의 모함으로 폐기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책은 폐기되는 보보를 통해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가문비·1만원〉

▲**심심한 강아지**=아기 말놀이 그림책 시리즈. 독자가 책 속 강아지와 말을 주고받으며, 신나는 승바꼭질 놀이를 함께하는 그림책이다. 주인공 강아지는 계속 숨고, 독자는 솔레로 참여하면서 놀이하듯 즐겁게 말을 배울 수 있다. 승바꼭질을 할 때 부르는 전래동요 '꼭꼭 숨어라 머리가락 보일라'를 넣어, 독자들이 노랫말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며 놀이에 더욱 빠져들게 한다.

〈시공주니어·1만3000원〉



시를 쓰지 않았던 시인 백석의 '마지막 7년'

일곱 해의 마지막

김연수 지음

사람들이 시인 백석을 기억하는 건 여러 가지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눈은 폭풍 날리고/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고 노래한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쓴 시 '흰 바람벽이 있어'를 읊조리는 이가 있을 터다.



에 내놓은 장편소설이다.

누구는 천억대가 넘는 길상사 부지를 기부하고, 자신의 돈의 가치는 "그의 시 한줄만도 못해"라고 말했다던 자야와의 슬픈 사랑 이야기나 월북 시인으로, 불행했던 그의 말년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소설가 김연수가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

는 시인' 백석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일곱해의 마지막'을 펴냈다. 동인문학상·이상문학상·황순원문학상·환상문학상 등을 수상한 그가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후 8년간

고증과 문학적 상상력으로 복원해냈다. 소설의 주인공은 백석을 연상시키는 시인 '기행'이다. 해방 직후 기행의 삶은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는 여인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통역관으로 능력도 인정받아 경제사정도 좋았던, 무엇보다 밤늦게 퇴근할 때면 종일 굴굴린 시구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가곤 했던" 평온한 생활이었다. 월북 후 시를 놓았던 그는 "사랑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불행해지는 것쯤이야 두렵지 않아서" 다시 시를 썼지만 "평생 혼자서 사랑하고 몰두했던 언어로 이루어진 시가 아님"을 알고 다시 시를 접는다.

전후 북한의 문화와 사회 현실을 기행과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소설은 기행이 일하는 평양 노어번역실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된다. 기행은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작가 벨라의 통역을 맡으면서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되고, 그녀가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 자신이 쓴 시들이 적힌 노트를 함께 보낸다. 이후 기행은 북한에서 발표할 수 없는 시를 적어 러시아에 있는 벨라에게 보냈는데, 1년이 지나 러시아 시 두편만이 담긴 채 그녀에게서 회신이 오면서 사건이 펼쳐진다.

책은 1958년부터 7년 동안 북한의 모습을 세세히 보여준다. 파스테르나크의 '쥐'와 '선생' 등 당시 유행했던 책들의 이야기나, 북한에서 만났던 소설가 이태준과의 일화 등도 눈길을 끈다.

책에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등 백석의 대표작과 함께 이태준의 '무서운' 중 '해촌일지', 벨라 아흐마틀리나의 시 '젓나무', 신불출의 만담 '개똥 할머니', 이오덕이 엮은 '일하는 아이들'에 등장하는 초등학생 시 '햇빛' 등을 재구성하고·인용해 등장시켰다.

〈문학동네·1만3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